

## 省心篇 (中)

王參政四留銘曰、留有餘不盡之巧 以還造物 留有餘不盡之祿 以還朝廷 留有餘不盡之財 以還百姓 留有餘不盡之福 以還子孫。

⇒ 왕참정의 사류명에 이르기를, 여유를 가지고 재주를 다 쓰지 않았다가 조물주에게 돌려주고, 여유를 가지고 봉록(俸祿)을 다 쓰지 않았다가 나라에 돌려주고, 여유를 가지고 재물을 다 쓰지 않았다가 백성에게 돌려주며, 여유를 가지고 복을 다 누리지 않았다가 자손에게 돌려주라.

⇒ 王參政の四留銘に言うのに余裕を持って才を使い果たさなくて造物主に返して、余裕を持って俸禄を使い果たさなくて国に返して、余裕を持って財物を使い果たさなくて民に返して、余裕を持って福をすべて享受しなくて子孫に返し。

黃金千兩 未爲貴 得人一語 勝千金。

⇒ 황금 천 냥이 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좋은 말 한마디를 듣는 것이 천금보다 낫다.

⇒ 黄金千兩が珍しいのではなくて他人の良い一言を聞くことが千金より良い。

巧者 拙之奴 苦者 樂之母。

⇒ 재주 있는 사람은 재주 없는 사람의 노예가 되고, 고생하는 것은 즐거움의 근원이 된다.

⇒ 才ある人は才ない人の奴隷になって、苦勞することは楽しみの根源になる。

小船 難堪重載 深逕 不宜獨行。

⇒ 작은 배는 무거운 짐을 실으면 감당하기 어렵고, 으스스한 길은 혼자 다니기에 좋지 않다.

⇒ 小さなお船は重い荷物を積めば手におえにくいし、しんとする道は一人で通うのに良くない。

黃金 未是貴 安樂 值錢多。

⇒ 황금이 귀한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보다 값지다.

⇒ 黄金が珍しいのではなく樂で楽しいのがより貴い。

在家 不會邀賓客 出外 方知少主人。

⇒ 집에 있을 때 손님을 맞아 대접할 줄 모르면 밖에 나갔을 때에 비로소 자기가 남을 소홀히 대접했던 주인임을 알게 된다.

⇒ 家にいる時お客さんを迎え持成すことが出来なければ外に出た時に初めて自分が他人を疎かに持成した主人なのを分かるようになる。

貧居鬧市無常識 富住深山有遠親。

⇒가난하게 살면 변화한 시장거리에 살아도 아는 사람이 없고, 부유하게 살면 깊은 산골에 살아도 먼데서 찾아오는 친한 사람이 있다.

⇒貧しく暮せば賑やかな市場通りに住んでも知り合いがいなくて、富裕に暮せば深い山里に住んでも遠いところから尋ねて来る親しい人がいる。

人義 盡從貧處斷 世情 便向有錢家。

⇒사람의 의리는 다 가난때문에 끊어지고, 세상의 인정은 곧 돈 있는 집으로 향한다.

⇒人の義理はすべて貧乏のため切れて、世の中の人情はすぐお金のある家に向ける。

寧塞無底缸 難塞鼻下橫。

⇒차라리 밑 빠진 항아리는 막을지언정 코밑에 가로놓인 입은 막기가 어렵다.

⇒かえって下が抜けたかめは阻もうとも鼻の下に横たわった口は阻みにくい。

人情 皆爲窻中疏。

⇒사람의 정은 모두 균색한 가운데서 멀어진다.

⇒人の情けはみんな乏しい中で遠くなる。

史記曰、郊天禮廟 非酒不享 君臣朋友 非酒不義 鬪爭相和 非酒不勸。 故 酒有成敗而不可泛飲之。

⇒《사기》에 이르기를,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사당에 제사를 올릴 때 술이 아니면 신(神)이 흠향하지 않고 임금과 신하, 친구들 사이에도 술이 아니면 그 의리가 두터워지지 않는다. 싸운 후에 서로 화해를 하는 데에도 술이 아니면 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술에는 성패(成敗)가 있으니 술을 함부로 마셔서는 안 된다.

⇒《史記》に言うのに天に祭祀をあげて祠堂に祭祀をあげる時お酒ではなければ神さまが飲まないし、王様と臣下、友達の間にもお酒ではなければその義理が厚くならない。争った後お互いに仲直りをするところにもお酒ではなければ勧めないだろう。だからお酒には成敗があるからお酒をむやみに飲んではいけない。

子曰、士志於道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

⇒공자가 말하기를, 도(道)에 뜻을 두고서 나쁜 옷을 입고 나쁜 음식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선비와는 더불어 즉히 의논할 수 없다.

⇒孔子が言うのに道に志を抱いて悪い服を着て悪い食べ物を食べることを恥ずかしく思う士とは一緒に十分に議論することができない。

荀子曰、士有妬友 則賢交不親 君有妬臣 則賢人不至。

⇒순자가 말하기를, 선비가 친구를 시기하면 어진 사람(친구)과 사귀어 친해질 수 없고 임금이 신하를 시기하면 어진 사람(신하)이 오지 않는다.

⇒荀子が言うのに士が友達を嫉めば優しい人(友達)と付き合っ親しくなることができないし王が臣下を嫉めば優しい人(臣下)が来ない。

古書との出会い 省心篇 (中)

天不生無祿之人 地不長無名之草。

⇒ 녹(祿) 없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 祿のない人を生まれるようにしないし、地は名の無い草を育てない。

大富 由天 小富 由勤。

⇒ 큰 부자는 하늘의 뜻에 달려 있고 작은 부자는 근면에 달려 있다.

⇒ 大金持ちは空の意味によるもので、小さな金持ちは勤勉によるものである。